

예배 전에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앞서가신 분이 남겨놓은 신앙적 유산과 교훈을 기억하고,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며, 내세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이드영상이 필요하신 가정은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usanskc.com>



기도

하나님, 온 식구를 한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복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추석 가정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	인도자
찬 송	427장
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민수기 6:24-26
말 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
기도	인도자
찬 송	587장
묵상기도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예배의 부름〉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 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 경 민수기 6:24-26

- 24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 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

늘 한가위를 지나면 나는 지난 한 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길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인도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삶에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는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일과 앞으로의 길에도

동행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시다는 말씀은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랄 때 부모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사랑의 눈빛을, 안타까움의 눈빛을, 긍휼의 눈빛을 비추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즉 살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삶에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만 살롬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도 살롬을 주시고,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살롬을 주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참 만족과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롬,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식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후 기도

하나님, 올 한해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이후의 날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막힌 문이 열리고, 답답한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하기

다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앞서가신 어르신들께서 남겨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pusanskc.com
49024 부산시 영도구 청학서로 42
T. 051-416-3043 / F. 051.416.3041
담임목사 이정환